

TEACHER

VILLAGE



Vol. 18 | 2022 SUMMER

ANNIVERSARY

20 YEARS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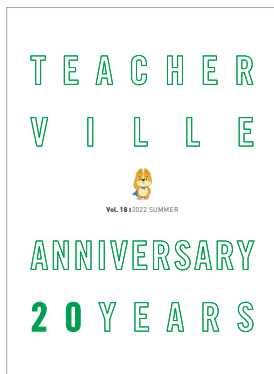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2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尖沙咀鐘樓
TSUI SHA
CLOCK
TOWER
天星碼頭
STAR FERRY
PIER



넓은 광장 바닥에 편히 앉아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네요.

아이들의 뛰는 소리, 연인들의 대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소리까지

광장의 모든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다 눈을 감기게 하는 자장가가 될 것 같아요.

CONTENTS

Vol.18 | 2022 SUMMER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2년 6월 16일 통권 제18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age.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여는 글

- 06 티처빌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Zoom in Focus

- 08 메타버스로 학교하자!
· 김상균
- 12 “메타버스는 미래교육”
· 박기현

Class Know-How

- 14 기초학력 지원의 중심에 ‘사람’을 뒀다 합니다
· 윤수경
- 18 자석으로 지폐 움직이기와
인덕션 자이로드롭 만들기 · 김건구

Education Trend

- 22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부의 기술활용 전략과
초월적 협력 절실 · 정훈
- 26 미래교육, 교사가 직접 디자인한다 · 홍지연
- 28 “나만의 창의적인 직무연수 강의해볼까요”
· 조안나

Teacher Mall

- 32 티처몰, 커스터마이징 교구샵 ‘똑딱샵’ 오픈
· 에듀커머스사업부

Interview & People

- 34 배움중심·자율장학... 함께 답을 찾아가며
집단성장합니다 · 한은선



- 38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래, 구례!”
• 김재우
- 42 훼손되고 왜곡된 역사 흔적에 “울컥”
• 김현진
- 46 어른 같지 않은 어른으로 키우겠습니다
• 최문혁



Teacherville News

- 48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52 티처빌 20th, 교사의 일상이 되다
- 54 'KT AI 코딩블록' 라이브 연수 성황리에 마무리
• 티처빌사업부
- 56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8 신규과정



Teacher Life

- 60 골 때리는 여교사들의 이유 있는 풋살 사랑
• 조연지
- 64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제주를 엔그리다
• 박보영

Book

- 68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스쿨 메타버스

Cartoon

- 70 험툰 Heartoon • 이병용





티처빌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7만 5,200시간, 함께한 날만 7,300일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순간인 만큼 선생님들에게 티처빌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티처빌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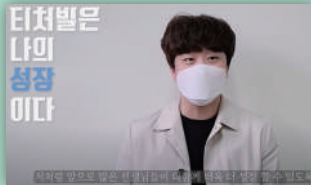
“나에게 티처빌은 [] 이다”



정도행 선생님

티처빌은 나의 **[미리보기]** 이다

티처빌을 보면 교육의 흐름, 트렌드 선생님들의 활동과 수업 노하우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선생님

티처빌은 나의 **[성장]** 이다

티처빌 덕분에 매일매일 성장하는 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저처럼 앞으로 많은 선생님이 다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티처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세은 선생님

티처빌은 나의 **[내비게이션]** 이다

어렵고 하기 싫을 때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연수를 보면서 힘을 얻었고, 또 재미있는 강의나 여러 수업 플랫폼 자료를 공유 받으면서 힘을 냈습니다. 언제나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티처빌, 앞으로도 선생님들에게 꽃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종혁 선생님

티처빌은 나의 [놀이터] 이다

티처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뿐만 아니라 200년, 2000년, 2만년까지도 짝짝 뻗어나가는 티처빌이 되길 바랍니다.



김첼리 선생님

티처빌은 나의 [기회] 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 우리 선생님들께 항상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고 많은 선생님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 항상 감사합니다. 30주년, 40주년까지 계속해서 번창하세요. 파이팅!

티처빌은 나의 [선생님]이다

교사로서 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선생님이라 생각합니다.

ID: 네코 **

티처빌은 나의 [동료]이다

힘이 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배우려는 열정이 필요할 때 항상 함께해주는 좋은 동료입니다.

ID: ball*w

티처빌은 나의 [방앗간]이다

어떤 연수를 들을까, 이번엔 이벤트를 할까, 컴퓨터를 켜면 매일 들르는 나의 방앗간...나는 참새^^

ID: bin 13*9

티처빌은 나의 [학교]이다

- 교직에 들어서 학교생활과 함께 티처빌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 학교 생활도 티처빌의 시간도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 티처빌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ID: mis*****

티처빌은 나의 [사이다]이다

교직생활에서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ID: 아무거나*

티처빌은 나의 [왓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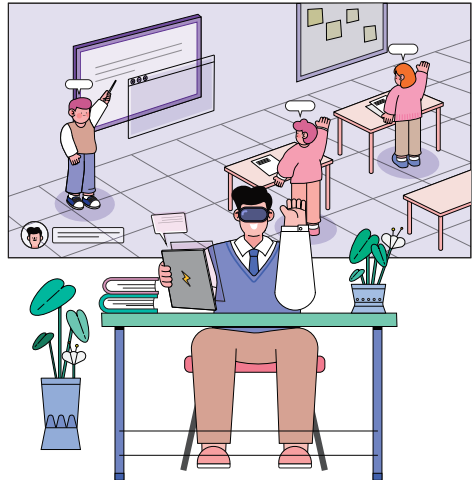
셜록 홈스가 동료 왓슨이 있어야 빛을 발하듯 제게 있어 티처빌은 훌륭한 사이드 킥입니다.

ID: 양*몸뚱뎌

20TH ANNIVERSARY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학교를 꿈꾸며 메타버스로 학교하자!

글.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가?”

모든 교육기관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저 30년 전에도 있었기에 오늘, 내일도 우리 존재가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배움을 갈망하는 인류를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 존재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닌데,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배움이 완성된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수업시간에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닌데, 시간표는 그 시간만으로 우리의 배움이 끝난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해 배웁니다. 학교 밖 세상에서 내가 마주치는 모든 이들로부터,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저녁에도 휴일에도 이어집니다. 학교를 졸업할 지언정 배움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교사와 학교

교사는 교실·연구실에만 머무르지 말고, 메타버스를 통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녀야 합니다. 무한히 연결된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 있는 지식을 건져내 학습자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이든 학교가 돼야 합니다.

교사가 간혀 있지 않은 학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학교를 꿈꿉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메타버스 시대의 교사·학교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욕망과 메타버스

인지과학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면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이란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과 타인을 대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소통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상호작용이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의 이면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게 하는 소통의 욕망이 있고, 세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추구하게 하는 탐험의 욕망, 제 뜻을 펼쳐 세상에 분명한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게 하는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소통·탐험·성취라는 ‘세 가지 욕망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가?’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이 세 가지 욕망은 잘 해소되고 있을까요? 충분한 소통과 탐험과 성취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을까요? 학생과 교사 간 소통, 학생과 학생 간 소통에 우리는 덜 인식해야 합니다. 지적 탐험은 열거된 지식을 제시된 순서대로 탐색하도록 하는 데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종합하며 학습할 기회는 희박합니다. 자연히 성취의 기회도 적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

약 10년 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세 가지 욕망의 결핍을 보완하려는 시도입니다.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 기법이나 게임적 사고 등 게임 요소를 접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에서 기존 학습 과정에 게임 요소를 접목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 메타버스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실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상황에 도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도구 혹은 장소입니다. 소통·탐험·성취라는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힘을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수업에 관한 관심을 잃지 않은 교육자라면 메타버스에 주목해볼 적합니다.



약력 김상균

-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 저서 『스쿨 메타버스』 (공저), 『메타버스 1:2』

메타버스 시대, 교사의 조건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진행할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앞서 충족돼야 할 조건은 교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실 속 상호작용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많은 책상과 의자, 교탁과 교단이라는 구조물로 이뤄진 좁은 교실 공간이 만들어내는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교탁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감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교탁을 올려다보다 우러러보고 천장에 놀리

게 되지요. 게다가 교사는 아이들이 10분 더 학습하도록 지시하거나 5분 일찍 자유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사는 학생의 시공간을 통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한곳에 집중된 교사 중심의 권력 구조는 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 중심의 권력 구조를 과연 모든 순간에 부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사가 시공간에 대한 권력을 내려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제 뜻대로 움직이는 개인 고유의 권력이 충전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집니다. 개인의 행동이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나 자신만의 것이라는 점을 금세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고민과 결정 그리고 책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새로워지고 유의미해집니다.

그런데 물리적 교실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신나게 대화하는 건 곤란합니다. 다른 공간에 불편을 끼쳐 불만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소음은 공동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을 움츠러들게 하고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좁히는 제약요인입니다. 그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어떤가요? 우선 교실을 어디에든 무한정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이 각자의 방을 가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해나가는 활동의 중앙에 섭니다.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리듬감에 따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학습자가 자신의 관계, 탐험, 성취 욕망을 충족해가는 굳건한 주체가 되도록 해줍니다.

메타버스 교실의 첫 번째 옵션, 아바타

이 효과의 극대화를 원하지만, 섣불리 시도해 보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자들에게 저는 가장 먼저 아바타부터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아바타로 대화하고 토의하면 소통의 범위, 깊이, 양 모두가 심화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외의 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참가자를 아바타로 등장하게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바타는 선입견을 넘어서게 해주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심사위원이나 청중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표준을, 즉 멋진 가수라 하면 젊고 잘생기고 백인인 미국인을 기대하는 선입견의 높은 벽을 진짜 실력자들이 단번에 넘어서게 해준 아주 간단한 장치가 다름 아닌 아바타였거든요.

새로운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일궈나갈 학생들에게 우리는 선입견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권력·폭력 등 학교에서 건어줘야 할 선입견은 다양합니다. 아바타로 토의하기 같은 활동으로 아바타의 특별한 능력을 교실에서 한번 체험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통의 확장이라는 익명성의 교육적 가능성을 취하고 리스크는 숙제로 삼아 해결해 봅시다. 우리 교육자들의 훌륭한 집단 지성을 지킵니다. ①

티처빌 20주년 X 스승의날

티처빌의 스무살을 함께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20년

선생님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지난 20년!
NO.1 교원연수원으로 만들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티처빌 | 선생님이 만드는 직무연수 Teachers Make Contents '티콘(TCON)' Coming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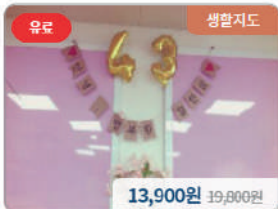
선생님과 티처빌이 함께 만드는 직무연수 콘텐츠!
이제 원하는 주제의 직무연수를 교사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티처빌이 도와드립니다.
티처빌과 함께 혼자만 알고 있가 아쉬운 지식을 공유하고 가치를 높여보세요!



마이크로러닝 + 교사 크리에이터 + 티처빌 지원

쌤동네 | 선생님의 '같이 성장'을 응원하는 쌤동네

866개의 쌤모임, 11,667건의 교사 콘텐츠
교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든 쌤동네의 결과물입니다.
쌤동네는 앞으로도 교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번에 끝날 학급운영자료 All in 1-1
정 연수 강사 첫탄 PPT, 학부모 ...



행복한 답임되기 강의 합본(3종, 7차시, 350분) 할인 이벤트 중!



선경쌤과 함께 3월 행복한 학급경영 준비하기 영상



교실 속 경제교육, 적응 예시와 꿀팁 + 화폐경영 ppt, 학습지 양식 들세트...

티처빌 라이브 | 라이브 연수 'T-LIVE'

작년에도 많은 사랑을 받은 티처빌 라이브! 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들까지 확장됩니다.
티처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클래스메이커 | 국내 최다 11개 출판사 교과서 수업자료 제공

19만개의 학년 · 과목 · 차시별 큐레이션 콘텐츠
초등 선생님 8,128분과 함께 만들어 온 클래스메이커의 발자취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클래스메이커, 그 마음이 오토이 수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 **“메타버스는 미래교육”**

인터뷰.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미래세계라는 정의로 바라보면 메타버스는 미래 교육으로 바뀌도 통하는 말입니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 부문 대표는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소개한 책 『스쿨 메타버스』를 내놴다. 에듀테크 전문가로서 메타버스 전문가인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함께 학교를 위한 메타버스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메타버스에 대한 역사적 개념부터 실제 교사의 수업 사례까지 담았다. 박 대표가 10년 넘게 재직 중인 테크빌교육은 20년 이상 초·중·고와 교사를 지원해온 교육기업이다. 2003년부터 에듀테크연구소를 열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R&D)해왔다.



그가 이끄는 에듀테크부문에선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에 따라 국내외 솔루션을 새로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한다.

박 대표는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고, 교육이 바라보는 목표를 기술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IT 컨설팅과 유사하다”면서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교육에서도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감미디어 기술 활용이 화두가 됐다. 온라인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메타버스 교육은 기존 교육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표는 메타버스 교육이 과거 교육과 다른 점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이러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것이었다면 메타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실재감’을 기반으로 한다.

박 대표는 “그동안 교육이 지나치게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져왔다”고 진단했다. 교육이 물리적 공간인 ‘교실’·‘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 밖 변화와는 단절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강제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옮겨졌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불만족했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 대표는 “메타버스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3차원 가상세계와 아바타를 만드는 것에 앞서 어떤 경험을 줄지 교수학습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종합적 학습 시스템과 교원 역량 강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박 대표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메타버스라고 정의하는 순간, 다른 것은 메타버스가 아닌 것이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철폐와 환경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T**



약력 박기현

-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부문 대표
- 저서 『스쿨 메타버스』(공저).

*본 글은 2022년 4월 전자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새 정부 교육키워드 '기초학력편'

기초학력 지원의 중심에 '사람'을 둬야 합니다

글. 윤수경 서울 발산초등학교 선생님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책무이자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계속되는 배움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소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와 교사는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오랜 기간 기초학력에 관해 연구해온 윤수경 선생님은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생 성장의 동력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보셨나요?

사례 1: 무기력한 아이, 무엇을 제안해도 싫어요, 안 해요.

사례 2: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

사례 3: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모르는) 게 너무 많은 아이(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례 4: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함께할 때는 잘 몰라도 개별지도를 하면 이해하는 아이.

사례 5: 관계 형성에 서툴러 모둠활동이 안 되는 아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들

학년 초,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모두 다 손을 듭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아이가 손을 내리고, 몇몇 아이들 손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대다수의 아이가 다시 손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학습(배우고 익히는 것)에는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장 환경도 각기 다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 또한 아이마다 다릅니다. 한 두 번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익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학교에 모여, 같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의 누적으로 자존감과 소속감이 낮아지며 ‘무기력’을 학습해 버리기도 합니다.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학습부진아, 학습지원 대상 학생.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전자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학생에게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우리가 지원하는 학습이나 방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이 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절실히 말이지요.



약력 윤수경

- 서울 발산초등학교 수석교사
- 서울초등기초학력연구회 회장
- 서울시교육청 공실, 진로교육 지원위원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기초학력, 공실 지원단(장)
-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초학력 협력단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등을 분석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제때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와 다원적 진단을 바탕으로 원인별 지원 방안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인권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배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의 문을 열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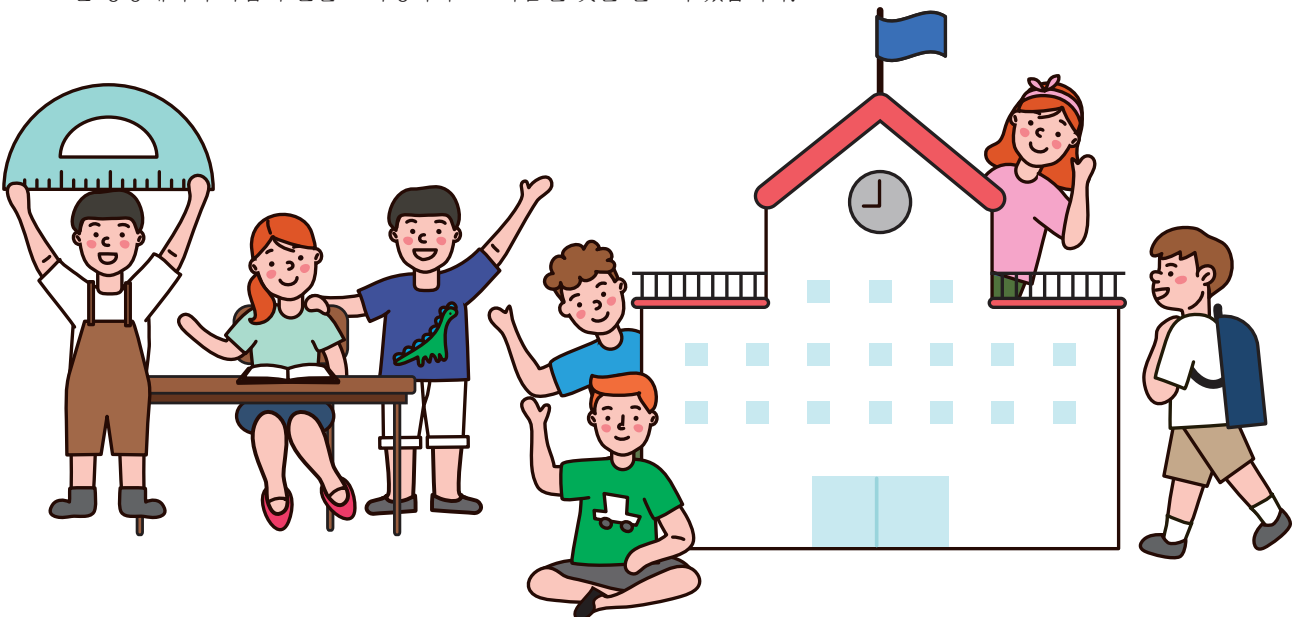
는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 교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아이에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책무입니다. 기초학력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힘'이라면, 또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으로,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지원은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공부는 인간의 본능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원자로서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과 소속감의 충족에 집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학생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아이가 다른 아이와 꼭 같은 속도로 성장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경험과 성장 배경이 다른 모든 아이가 그 시간에 똑같은 배움의 크기를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학생의 선택지를 통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속성을 위한 흥미 요소와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은 무엇을 통해 성장의 동력(계기)을 얻는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에 학생의 성향이나 타고난 기질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다양한 상황에서의 복합적 관찰로 학생마다 '그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으로,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돼야
합니다.



넷째, 반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 크게 좌절하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좌절의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공공재다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교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묻지만, 우리가 만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서 대답을 듣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답은 더 없어지고, 교사를 배려해 들려주는 대답에는 ‘몰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등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이들은 더 이상 상처 입기 싫어 자기 스스로 커다란 돌로 문을 막아놓은 것은 아닐까요? 자기 앞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우주를 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스스로 그 문을 뚫고 열고, 서툴지만 용기 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설렘을 담은 배움과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개를 들까?’, ‘무엇이 출발이었을까?’ 등의 질문을 가지고 교사는 더 집중해 관찰합니다. 아이를 채근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키우는, 그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교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 그곳이 학교라면, ‘틀려도 괜찮고, 학교는 편안한 곳이고, 우리는 배움을 즐기러 학교에 왔단다. 마음껏 시도해 보고, 마음껏 틀려 보고, 마음껏 수정하면서 잘사는 연습을 하는 곳이 교실’이며, ‘너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선생님은 늘 네 옆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아이와 쌓는다면, 아이는 서서히 자기 마음과 호기심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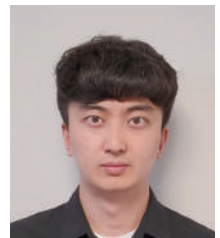
기초학력 지원의 첫 출발은 따뜻한 눈빛과 신뢰로 ‘아이를 촘촘히 바라보는 것’이며, 기초학력 지원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것이리라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T**

재미있는 과학 실험하며 특별한 여름방학 보내보자 자석으로 지폐 움직이기와 인덕션 자이로드롭 만들기

글. 김건구 인천송원초등학교 선생님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날이 무더워지고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때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줄 계획인가요? 저는 올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이지요. 학생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과학적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약력 김건구

- 인천송원초등학교 교사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유튜브 《초가공IV》 초등학교생의 기초 공부법》 채널 운영

지폐 움직이기 실험

준비물: 지폐, 이쑤시개, 자석, 나무젓가락

1.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2. 나무젓가락 가운데 부분에 이쑤시개를 끼워 고정합니다.
3. 지폐를 길게 반으로 접습니다.
4. 지폐의 중심 부분을 이쑤시개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5. 자석을 지폐 주변에 가져다 대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실험 영상 보기



아하! 과학원리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학 ‘자석의 이용’ 단원에서는 자석의 성질에 대해 배웁니다. 이 실험은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 다른 자석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한 마술 같은 실험입니다. 위 실험에서 지폐는 왜 자석에 반응해 움직인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폐를 만들 때 위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때 자성잉크도 사용합니다. 자성잉크란 자성이 있는 산화철의 가루를 섞은 잉크입니다. 지폐에 사용되는 자성잉크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석을 가져다 댔을 때 쇠붙이처럼 딱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폐를 물 위에 두거나, 이쑤시개에 올리거나 종이에 매달았을 때처럼 주변과 마찰을 최소화한다면 자석을 가져다 댔을 때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인덕션 자이로드럼 만들기 실험

준비물: 알루미늄 포일, 인덕션, 가위, 휴지심, 매직

1.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2. 알루미늄 포일 가운데 부분에 휴지심을 놓고 원을 그립니다.
3. 원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에 큰 원 하나를 더 그린 뒤, 자이로드럼이 될 몸통 부분을 매직으로 예쁘게 꾸며 줍니다.
4. 알루미늄 포일을 반으로 접어 중심 원을 오리면 가운데 구멍이 생깁니다. 이때 선보다 바깥쪽으로 오려 휴지심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5. 알루미늄 포일과 휴지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휴지심을 중심에 놓고, 알루미늄 포일은 휴지심에 끼워 넣는 형태로 놓습니다.
6. 인덕션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실험 영상 보기

※ 주의사항

- 반드시 인덕션을 사용합니다. 다른 전자레인지(하이라이트)는 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해도 괜찮으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포일 한 겹으로만 실험합니다. 여러 겹이 만나는 경우 불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 과학원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학 '전기의 이용' 단원에서는 전자석의 성질에 대해 배웁니다. 전자석이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 만든 자석입니다.

인덕션은 전원이 들어오면 내부 코일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자석의 원리에 따라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상판 위에 놓인 용기에는 와전류(도체에 걸린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자기유도에 의해 도체에 생기는 소용돌이 형태의 전류)가 발생합니다. 용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인덕션 중앙에 휴지심을 올려놓습니다. 인덕션 중앙에 꾸민 포일을 놓고 가운데 휴지심을 놓습니다.



인덕션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은 전기전도도가 높습니다. 즉 저항이 낮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철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것에 비해 열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와전류의 흐름에 따라 가벼운 알루미늄 포일은 쉽게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로드롭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선생님들께서도 위 과학 실험을 활용해 특별한 방학 과제를 내보세요.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아직도 유튜브에서 수업 영상 찾으세요?

광고 없는 수업 영상 클래스메이커에서 무료로 쓰세요

- ✓ 11개 검정출판사 전과목 교과서를 차시별로 큐레이션
- ✓ 현직선생님과 시가 추천하는 영상 19만 개 탑재
- ✓ 바쁠 땐 핸드폰으로 쓱쓱 즐겨찾기해서 바로 수업
- ✓ 교학사, 금성, 대교, 지학사, YBM 제휴를 통한 출판사자료 제공



전문가 추천 콘텐츠



구간재생

즐거찾기

3학년 1학기 > 사회 > 지학사

1 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 > ①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장의 모습 / [1차시] 같은 장소, 다른 생각 (8~9쪽)

우리 고장의 다양한 장소와 나의 경험 생각그물

추천수업단계 동기유발 개념설명 심화활용

참고발문 전 - 같은 장소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친구와 같거나 달랐던 경험이 있나요?
후 - 나에게 특별한 장소를 떠올려 봅시다.

활용TIP 고장의 다양한 장소와 각자의 경험을 생각 그물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추천학습구간 00:23 ~ 03:42

출처: Song Song (유튜브)

상세한 영상 정보로
수업준비는 더욱 빠르게!

클래스메이커
소개



클래스메이커
바로가기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Bettshow 2022 현장에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부의 기술활용 전략과 초월적 협력 절실

글. 정훈 러닝스파크 대표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영국 ‘베트쇼 2022’(Bettshow 2022)가 지난 3월에 개최됐다. 베트쇼에는 지난 10여 년 간 산업화를 통해 교육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녹아 있다. 또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가 결과로 담겨 있다. 이런 ‘베트쇼 2022’에 정훈 러닝스파크 대표가 직접 다녀왔다. 박람회 현지 분위기와 해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방향, 그리고 주목할 만한 교육 기술에 관해 물어보았다.

글로벌 에듀테크 박람회 '베트쇼 2022'에 가다

지난 3월 런던 엑셀 컨벤션 센터에서 글로벌 에듀테크 박람회 '베트쇼 2022'가 개최돼 영국 땅을 밟았다.

코로나19로 구경을 포함한 몇몇 에듀테크 빅테크 기업과 입출국이 제한된 중국이 참가하지 못해 참가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미 워드 코로나 체제로 접어든 런던은 마스크를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환한 얼굴엔 활기가 넘쳤다.



영국, 기술혁신을 통해 교육과 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2010년 아카데미 학교설립법과 정부 주도 개방형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은 2019년 교육에서 기술의 잠재성 실현 (Realis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in education)이라는 전략보고서를 통해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방향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육의 산업화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수많은 실패 경험과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공감과 협력의 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보고서여서 그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에듀테크 산업화의 목적을 학교의 요구에 맞는 높은 품질의 증명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해 지속해서 창출하며 교육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한 지점이다.



약력 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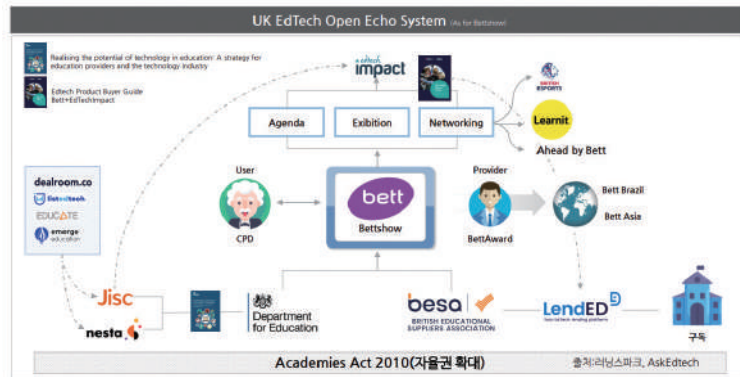
- 에듀테크 마켓인텔리전스, 리넵스파크(주) 대표
- 동국대학교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 객원교수
- 육군 LVCG 과학기술그룹 자문위원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사
- (사)아시아교육협회 학습혁명포럼 위원
- (사)미래인학회 이사
- 前 에듀니티랩 공동창업자
- 前 SK C&C GIG 신성장부문

베트쇼,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영국 정부의 결과



특히 영국 정부가 기술을 도입해 혁신하고자 하는 영역을 ①관리 업무경감 ②지능형 과정 중심의 평가 ③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교수 혁신 ④교사의 역량개발 ⑤평생교육 5가지로 정의하고 이 영역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의 성장

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창출된 에듀테크 제품은 매년 초 런던 엑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베트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영국 교육부 장관 나딤 자하위(Nadhim Zahawi)는 교육부를 가장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부처로 역량을 강화하고 증명된 제품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거(evidence)를 만드는 데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영국은 2011년부터 에듀테크 제품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증거를 개발하는 비영리단체 교육기금재단(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을 설립했고,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의 교육적 효과성을 실증하고 있다.

개방형 에듀테크 생태계의 조성과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젠다(Agenda) 세션에 볼거리가 많았다. 225명의 월드클래스 연사들이 참여해 지난 10여년의 정부 주도 개방형 에듀테크 생태계의 경험과 함께 팬데믹을 극복한 사례와 교훈을 공유했다. 특히 67개의 주제를 다룬 베틀퓨처(Bettfuture)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핀란드·스웨덴·아일랜드·미국의 연구자와 참여 기업들이 모여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데모스쿨을 통한 에듀테크 활용 확산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디지털 기술 표준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로 준비된 시간을 꽉 채웠다.





베트쇼를 빛낸 e스포츠 허브와 익스플로어 애널리틱스(explore Analytics)

올해 베트쇼에서는 e스포츠 허브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피어슨과 e스포츠 관련 고등교육과정(BTEC)을 개발한 영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전용공간을 통해 e스포츠 교육과정 및 진로탐색 설명회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호(Safeguarding), 웰빙(Wellbeing)과 관련된 제품들도 코로나19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비록 에듀테크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지만,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곳에 공적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다.

이번에 출품한 동공 인식 기술을 활용한 난독증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익스플로어 애널리틱스(explore Analytics)는 그 정교함과 디바이스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카메라 탑재된 하드웨어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음성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스 테크(Auris Tech)는 포네티(Fonetti)라는 서비스를 통해 읽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술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베트쇼 2023'을 기대하며

2022년 베트쇼에서는 '미래창조'(Create the Future)를 실현하기 위한 연찬이 가득한 행사였다. 내년 2023년 베트쇼에서는 또 어떤 교육에서 기술의 잠재성 실현(Realiz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된다.

“디지털은 쉽다. 그러나 그 전환은 어렵다
(Digital is easy; Transformation is hard).”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기술활용 전략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초월적 협력이 절실하다. ①

교사들, '2022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뜨다 미래교육, 교사가 직접 디자인한다

글. 홍지연 석성초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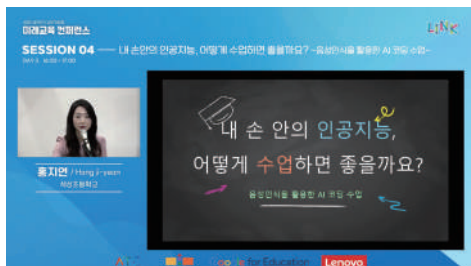


최신 교육 트렌드 조망하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우리 교육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국내외 최신 교육 트렌드를 조망하고 올바른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교육박람회에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수 학습 방법,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설 및 건축환경, 시설 교구 및 기자재 등 새로운 제품과 교육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보고, 생각하고 발견함으로써 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종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교육박람회 가치는 '시장'이 아닌 '교육'에 있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교육박람회에 수년간 교사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다양한 사례를 봤다.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미래교육 사례를 온·오프 링크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교육박람회 성격상 부스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대다수가 에듀테크 관련 기업이다 보니, 기업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 보다는 시장의 논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교육박람회에 '교육'은 없고 '시장'만 있다면 교육박람회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교육'을 위해 교육박람회에 나선 교사들

그래서 올해 교육박람회에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나섰다. 시장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을 보여주고자 했다. 교사가 교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첫 번째 기획은 바로 '미래교육의 내일로 연결하는 미래교육 콘퍼런스'였다. 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교육이 미래교육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없다고 판단해 마련한 행사였다.

수업 노하우 공유하고 미래교육 방향 제언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한 인공지능 교육은 물론 구글을 활용한 수업 사례 나눔,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과정과 운영 사례까지 다양하게 모색했다. 에듀테크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하며 알게 된 노하우를 전달하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지 제언한 것이다.

브릭으로 미래교육을 함께 디자인

다음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두 번째 기획은 ATC 미래교육 체험공간(ZONE)에서 운영된 '미래교실 브릭챌린지'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학교, 미래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브릭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학부모임을 말하고 싶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정해주는 대로, 제안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미래교육의 주인공이자 한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브릭에 담아 표현해보고자 했다.



약력 홍지연

- 석성초등학교 교사
-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AI 강사 및 집필진
- EBS SW AI 강사 및 집필진
-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 연구개발팀장
- 저서 코딩과학동화 『팜』 시리즈, 『인공지능, 언플러그드를 만나다』 외 인공지능 교육 도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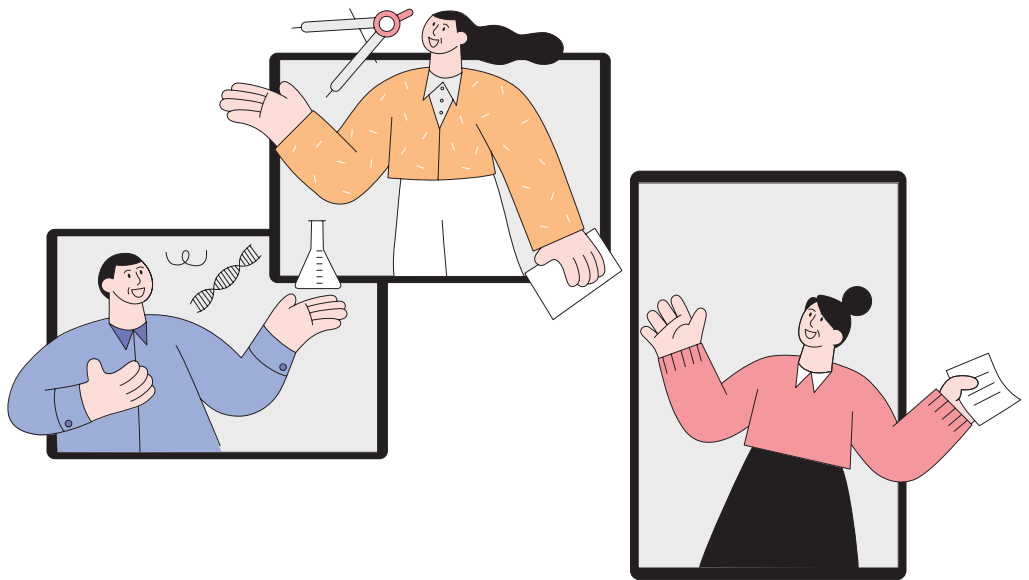
미래교육의 중심은 교사다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빠른 변화는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빠르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목소리와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술이 교육과 만나 시장만 남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술이 교육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미래교육이 우리 학교와 교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선생님이 있기에,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더 밝을 것이라 믿는다. ㉮



교사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연수 '티콘' "나만의 창의적인 직무연수 강의해볼까요"

글. 조안나 천안 용곡중학교 선생님



교사가 되면 직무연수를 들어야 하는데, 연수를 듣다가 ‘나도 직무연수 강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선생님들이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때 교사크리에이터협회나 티처빌에 문을 두드려 보자. 지금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티처빌이 교사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연수 서비스 ‘티콘’ 출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직무연수’

“조 선생, 연수는 잘 듣고 있어?”

임용 합격 이후,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부장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연수요?”

“아, 일 년에 몇 시간씩 직무연수 들어야 하잖아. 모르고 있었어?”

전교생 80명 남짓, 소규모 농촌학교에 발령받고 담임을 하면서, 버스를 2번 씩 같이타고 순회를 나가야 했던 신규교사 시절. 교사가 직무연수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10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다. 직무연수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교사 직무연수, 직무연수단체, 직무연수 연수원’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여러 원격교육 연수원을 처음 알게 됐다. 그날 이후 가끔 원격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들을 구경하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직무연수는 누가 만드는 걸까

그때 문득 떠올랐던 궁금증이 있었다. 직무연수는 누가 만드는 것인지, 직무연수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EBS 교육방송 같은 곳에 나오는 유명 강사들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직무연수 강사들이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초임 교사 시절 ‘나도 언젠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 강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무연수 강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비로소 안 직무연수 출시 과정... 대부분의 교사는 모른다

벌써 교직생활을 한 지 10년째. 우연한 기회로 2학점 직무연수를 론칭하고, 그 이후 교사크리에이티브협회에서 직무연수 개발 담당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직무연수 강의를 출시되는지 안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아직도 직무연수 강의를 출시되는 과정에 대해 모르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다.

직무연수, 보통 4단계의 과정 거쳐 선보여

직무연수는 일반적으로 연수기획, 연수촬영 및 편집, 심사 및 최종 론칭의 단



약력 조안나

- 천안 용곡중학교 교사
- 교사크리에이티브협회 이사
- 티처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술수업' 직무연수 강사
- 前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미술 감상과 비평 교과서 집필진
- 저서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탐구생활』(대표저자)



티처빌 직무연수 썸네일(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수업).

계를 거친다. 이 연수기획단계에서 연수원 측에서 해당 연수원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의뢰하거나,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같은 단체나 회사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교과 연수를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 협회를 기준으로 직무연수 론칭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연수 주제를 기획한 다음 협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강사를 모집한다.

이미 2022년에 협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연수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했고, 얼마 전에 촬영까지 마무리했다. 연수 강사가 선발되면 연수팀과 같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강의 개요·목차·시나리오 등을 작업하고, 이후 촬영이 진행된다.



촬영은 협회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연수팀·촬영팀·연수 강사팀이 모여 협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카메라 화면 안에는 3명밖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 화면 밖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촬영이 끝나면 작업파일은 영상팀에게로 넘어간다. 편집된 영상은 연수원과 협회의 협의(수정 및 피드백)를 거쳐 최종 완성되고, 완성된 영상은 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통과한 연수만이 최종적으로 연수원에 론칭될 수 있다. 나는 교사크리에이티브 협회의 직무연수 담당자로 이 일련의 연수론칭과정에서 강사분들이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기획·촬영·편집·심사까지 하나의 직무연수가 론칭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공이 필요하다.

티처빌과 함께 교사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연수 '티콘'

올해는 티처빌×교사크리에이티브 간 업무협약을 통해 2개 과정 연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연수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혼자 기획해 연수를 론칭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여러 선생님과 함께 연수개발 총괄을 진행해본 것은 나도 처음이라 아직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많다.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annasam0322> 안나샘의 미술실)에 한 미술선생님의 문의 글을 남긴 적이 있었다. 티처빌연수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술수업' 직무연수를 듣고 블로그를 방문한 선생님이었다. 질문의 요지는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직무연수를 촬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였다. 그 글을 보자마자 10년 전의 내가 생각났다. 그래, 나도 나만의 수업으로 직무연수를 촬영해보고 싶었다.

다양한 무대에서 교사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꿈이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저경력 교사 시절에 꼭 해보고 싶었던 직무연수를 론칭하게 됐고, 이제는 과거의 나처럼 직무연수 강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을 도와 연수를 개발한다. 과거에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룬 셈이다. 앞으로도 교사크리에이티브협회 연수팀과 함께 많은 교사가 자신만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노하우로 연수를 론칭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리고 티처빌에서도 교사가 직접 연수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티콘'(Teachers make contents)이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과거보다 교사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콘텐츠를 준비하고, 또 나만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역량을 심화시키면서 우리를 위한 무대가 펼쳐졌을 때, 무대 위에 올라가면 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⑦

선생님만의 개별 맞춤 교구, 여기 있어요!

티처몰, 커스터마이징 교구샵 '뚝딱샵' 오픈

글. 테크빌교육 에듀커머스사업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인 커스터마이징이 인기다. 운동화 디자인부터 가전 및 자동차의 컬러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다. 교육도 그동안 구축해온 방대한 DB를 기본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맞춤 교육 시대의 도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교구와 교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티처몰은 이런 흐름에 한 발 앞서 선생님별 맞춤형 교구와 교재를 제작해주는 커스터마이징 교구샵 '뚝딱샵'을 4월 론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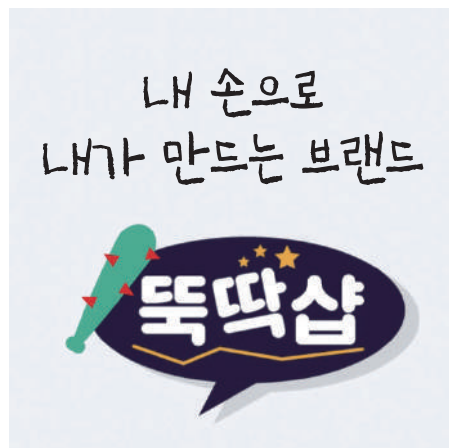


뚝딱샵에서 만든 커스터마이징 상품.

뚝딱샵 Slogan

선생님이 직접 기획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만든다.
쉽고 빠르게 제작한다.

뚝딱샵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상품을 30초 만에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평범한 연필과 공책에도 나만의 개성을 담아 표현할 수 있자 선생님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2학기에는 뚝딱샵에서 내 손으로 직접 교구와 교재를 만들어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면 어떨까. 



커스터마이징 교구샵
'뚝딱샵'



독딱샵 대표서비스 6

수업에 알맞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독딱샵 커스텀 노트



기본형 네임 스티커부터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 스티커



평범한 선물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로 만들어주는
독딱샵 어린이날 선물



환경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담다
우리 반 환경 지킴이
독딱샵 미니 에코백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고
필기력을 상승시키는
독딱샵 커스텀 필기도구



감성교육을 통한 자존감 Up!
작고 귀엽지만 수납력이 좋은
독딱샵 미니 스트링 파우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묻다 배움중심·자율장학... 함께 답을 찾아가며 집단성장합니다

인터뷰. 한은선 선생님

선생님의 집단지성을 이끌어주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다져주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 하지만 한번 시작하기도, 끝까지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수년간 전학공을 운영해온 한은선 선생님은 전학공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부족을 짚었다. 만약 올해 전학공 시작이 부담스럽다면 내년 신학기 워크숍을 활용해 전학공의 의미와 효과성부터 이야기 해볼 것을 당부했다.

Q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생활을 34년간 하고 2021년 2월에 명예퇴직한 한은선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게 됐어요. 현재는 한국하브루타연합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140여 명의 선생님과 배움중심의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직 당시 9년 동안 수석교사로 근무하면서 전학공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했는데요. 그동안 배움중심의 수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최근에는 한은선의 배움중심수업이라

는 블로그도 운영 중이고, 연구부장 대상의 전학공 자료도 꾸준히 공유하고 있어요. 전학공 강의도 여러 번 했고, 최근에는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에서 교감자격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학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장학’이라는 강의도 했습니다. 아울러 ‘티처빌 쌤동네’에서도 쌤 강사로서 많은 교사 대상의 연수를 진행하며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Q 전학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는데요. 학교 안 전학공이 왜 필요한가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수업에 자신 있는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수석교사를 9년간 한 저도 여전히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서 배울 점을 발견해요. 수업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수업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아이들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언어 사용으로 교사들이 받는 상처도 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도움이 절실한데 그때 전학공처럼 한 달에 2번 정도 교사 간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다져가는 활동이 필요해요. 아마 이런 모임이 없다면 선생님들은 1년 내내 다른 교사와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얼굴도 모른 채 지낼 수도 있을걸요.

반면 전학공을 통해 모임을 하며 대화하고 유대감을 쌓다 보면 쉽게 다가설 수 있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요. 아울러 생활지도도 함께해 나갈 수 있고, 주제탐구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역량 향상과 집단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외부 연수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왔고, 전학공도 꾸준히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이 귀찮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할 때보다 함께할 때 교사의 역량이 향상되고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Q 공감대를 이루며 시작하는 전학공,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이따금 다른 학교 연구부장이 제게 전학공 강의를 요청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전학공이 고민스러우면 그럴까 싶어요. 전학공의 시작과 유지의 핵심은 전학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잘해보려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를 잘 발휘하려면 시점이 중요한데요. 2월 신학기 워크숍을 잘 활용해야 해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째는 2월은 신규 교사 발령을 받고 새로운 학교로 이동해 오는 시점이라서고, 둘째는 교사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학기가 시작된 후에는 맘의 여유가 없다 보니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신학기 워크숍은 학교마다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일 정도 진행되는데 이때 전학공 항목을 꼭 넣어 이야기해보세요. ‘왜 전학공이 교사에게 필요한지’, ‘전학공 운영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질문해 선생님 스스로 답해볼 수 있도록 하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내도록 하는데요. 처음부터 전학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교사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력 한은선

- 한국하브루타연합회 부회장
- 前) 경기 화성 장안여자중학교 수석교사
- 배움중심수업 함께하기 2 창의적인 수업, 학생, 교사, 학교에 몰들다(2015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 책 읽는 교실 함께하는 독서토론(2016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 토론이 수업이 되려면/ 교육과 실천(공저, 2019년)
- 하브루타 네 질문이 뭐니/경향BP(공저, 2019년)

그리고 수업공개·수업나눔을 실천하는 ‘자율장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경상도 지역에서 필수로 지정된 자율장학에 전학공을 연결해 진행하는 방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전학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 교사가 스스로 포스트잇에 답변을 적어보도록 했지만 ‘자율장학’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고, 이후 수업나눔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했어요. 수업나눔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가 생각한 답변을 맞춘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렸어요.

질문	수업나눔을 왜 해야 할까요?	수업나눔을 왜 해야 할까요?
수업나눔을 왜 해야 할까요?	1위 답변: 포스트잇에 답변을 적어 주세요~ (1분 동안)	1위 답변: 교사의 집단 성장을 위하여
수업나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위 답변: 1위 답변을 맞히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2위 답변: 수업자의 수업을 더 좋게 하려고
수업나눔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3위 답변: 참관자가 수업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4위 답변: 학생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고
		5위 답변: 내가 수업 중에 관찰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시켜줌

Q 전학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학공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워요. 어떤 선생님은 직무연수로 전학공을 진행하니 진정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직무연수로 운영하면 철저히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유대감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육청·교사·학교 이 3가지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먼저 교육청은 전학공을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일주일 중 하루를 출장, 공문 없는 날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교사가 전학공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사의 마음가짐이에요.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직무연수 60시간 중 30시간 정도는 전학공을 통해서 하겠다는 최소한의 마음을 먹어야 잘 운영·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전학공 시간을 배려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교사의 마음속에 전학공이 없다면 결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학교예요. 학교 관리자들도 학교 행사나 방과 후 학교 일정을 전학공 모임 운영을 고려해 조정하려는 이해와 공감의 마음이 필요해요. 추가로 수석교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전학공 운영이 가능해요. 전학공 운영에 교감 선생님이 나서면 선생님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기에 1교 1수석교사제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5~2022년(8년간) 수석교사를 뽑지 않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전학공 운영을 위해선 수석교사 충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저만의 팁인데 전학공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어떤 때는 식빵을 준비한 적도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Q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전학공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학공은 ‘동료교사 수업 릴레이’예요. 한 명이 대표로 수업을 공개하면 부담은 특정 선생님의 몫이 되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역량은 향상되지 않잖아요. 저는 부담을 분산하고 전체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전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했어요. A 선생님이 B 선생님 수업을 참관하고 B 선생님은 C 선생님 수업을 참관하는 식의 로테이션으로요. 또 교과 구분 없이 수업을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요즘엔 교과 간 융합도 많아 다른 과목의 수업을 참관하며 교과 융합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때는 교과군끼리 진행하기도 했고요. 참관 후 피드백할 때도 중요하데요. 이때 무조건 칭찬, 좋은 점만 말하도록 했어요. 비판이나 대안 제시도 안 돼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더라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수업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3. 공동실천: 4시간으로 수업공개와 참관, 수업 나눔

1) 1학기 동료교사 수업공개와 수업참관

2020학년도 1학기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수업공개 방법 안내

-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는 공동실천으로 수업공개와 수업협의회를 반드시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만 대표로 수업공개하는 것은 못매를 혼자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양○○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 한 명만 대표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사가 모두 공개합니다. 같은 교과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수업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수업공개 방법 안내

- 기간: 5주간(9/21~10/31)

- 동료교사 참관범위: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우리의 수업성장을 위해 교과군끼리는 꼭 참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군] 겸시간표를 확인하시고 같은 교과군 수업참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 과	해당 교사(19명)
국어과, 한문과 영어과, 진로과, 특수	김 *, 김 *, 정 *, 조 *, 김 *, 한 *, 박 *
사회과, 도덕과 예체능과	오 *, 이 *, 이 *, 장 *, 정 *, 신 *, 박 *
수학과, 과학과 기술·가정과	이 *, 이 *, 이 *, 한은선, 김 *, 조 *, 양 *

학급관련	학급경영, 학급긍정훈육, 학급행사, 담임고민상담소 까칠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다루기, 학부모와 소통하기		
수업관련 역량	같은 교과 활동지 만들기(교과협의회와 함께 진행) 배움중심활동지 A to Z 배움중심수업, 비주요성, 영재교육수업 하브루타, 백워드 수업설계, 질문관련 책 공부, 이해중심 교육과정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생참여형 수업, 모둠활동, 놀이수업, 그림책수업 메타버스, 구글관련, 스마트교육, 온라인 쏠쏠한 수업, 패들렛 완전정복 땀커벨 완전정복,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놀이 수업 아이패드 굿노트, 크롬 잡학 지식, 갤럭시 탭 필기 어플 총정리 아이패드 드로잉 수업속의 진로교육 취업면접 코칭법		
	교사 119, 직안적업 반영예를 부록에		
부서별 업무	기초학력, 인성, 축제, 학교폭력, 기본생활지도, 성교육, 회복적교육, 생활지도, 학년별업무		
범교과주제	-독도 교육 -인성 교육 -다문화 교육 -진로교육	-안전·건강 교육 -통일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경제·금융 교육 -진로 교육 -인권 교육
	기타 연구대회 준비하기, 인성연구대회 준비하기, 교육영향제, 공간혁신		

여행작가 재우쌤이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래, 구례!”

글. 김재우 여행작가·국어선생님



이번 여름방학에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해외도 좋지만, 국내에도 가볼 만한 좋은 여행지가 많습니다. 그중 전남 구례는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로 사계절 다 둘러봐도 좋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아직도 여름 여행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면, 구례를 중심으로 남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사시사철 그냥 좋은 전남 구례

좋은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라서 좋고, 아빠는 아빠라서 좋습니다. ‘여행하는 선생님’으로 활동하니 많은 분이 묻습니다. “국내 여행했던 곳 중 어디가 좋아요?” 그럴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구례”라고 말합니다.



약력 김재우

- 서울 반포중학교 국어교사
- 선생님의 여행 이야기, '재우쌤의 여행학교' 운영
- 쌤동네 교사 여행 작가 과정 운영
- 비바샘 '재우쌤의 창의여행' 연재

이유요? 좋은 것은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리산이 품어주고, 섬진강이 흐르는 구례는 자연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는 “자연으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봄이면 봄이어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좋습니다. 가을이면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라 좋습니다. 사시사철 좋은 구례를 선생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KTX타고 3시간 30분, 숙소는 한옥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이젠 여행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됐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이지요. 구례는 KTX 구례구역이 정차해 철도로 이용이 쉽습니다. 또한 서울 남부터미널과 강남터미널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구례에 가면 토지면 오미마을로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곳에 조성된 한옥마을의 민박집들을 이용하면 숙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례에 호텔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다양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의 참맛을 느끼기엔 오미마을 한옥이 제격입니다.

1~2. 오미마을 한옥민박.

3. 지리산 둘레길.

4~7. 오미마을 풍경

베룩의 삶 배울 수 있는 오미마을 '운조루'

오미마을에는 ‘운조루’라는 오래된 고택이 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집’이란 뜻의 운조루. 200년이 훌쩍 넘은 운조루가 유명한 것은 부잣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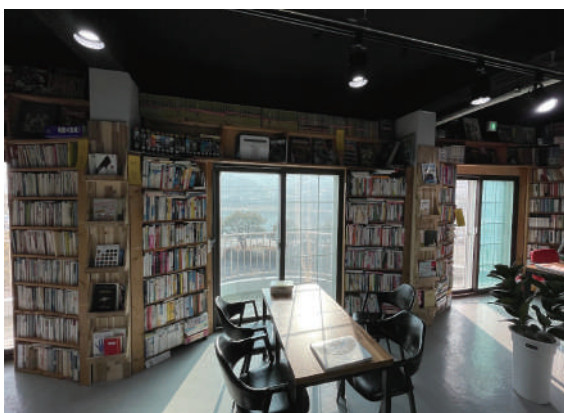
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너른 마음 때문입니다. 운조루 지붕 위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 연기가 높이 피어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명한 뒤주, 이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한 마음입니다. 누구든 와서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놓았습니다.

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쓰여 있습니다. '타인도 열 수 있도록 해 주 위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두고는 수시로 백미 두 가마니 반이 가득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삶, 배품의 정신을 본받고자 운조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미마을, 산책만 해도 재충전이 되는 명당

오미마을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뭔가 모르는 기운에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환낙지(金環落地)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선녀가 하늘로 가다가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길지이자 명당으로 손꼽힙니다. 구례에 오면 오미마을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산책만 해도 기운이 충전됩니다.

오일장-쌍산재-천은사-온천-노고단-둘레길-읍내 구경하기

오미마을에 등지를 틀고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구례 오일장에도 가보고, 쌍산재에도 가 봅니다. 화엄사에도 가보고 천은사에도 가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면 지리산 온천에도 가봅니다. 온천욕을 할 때 비가 내린다면 더 좋을 텐데요. 노고단에도 가봅니다. 노고단은 사전예약제예요! 지리산 둘레길도 걸어보고요. 섬진강 다슬기도 먹어보고, 읍내에 순댓국도 먹어야지요. 카페도 많아요. 커피도 좋고, 우리 전통차도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내친김에 남도 여행까지

만약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인근 주변 도시도 다녀보세요. 이왕 남도에 왔으니 남도 여행을 더 해보면 좋지요. 가까이 곡성도 있고, 남원도 있어요. 순천도 가깝고, 조금 더 가면 여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섬진강 줄기 따라 내려가면 화개장터도 있고, 그 옆은 한국의 알프스 하동입니다. 조금 더 가면 박물관 남해도 있지요. 구례에서 차로 1시간 내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방학이 금세 지나갈 수도 있어요. ㉮



재우쌤의 추천 힐링 코스

1일차: 구례구역(혹은 구례터미널)-지리산둘레길 17코스 중 (오미마을~토지면)-운조루

2일차: 노고단-천은사-지리산 온천

3일차: 화엄사-구례읍-사성암

숙 박: 오미마을 내 한옥민박(문의 010-2357-5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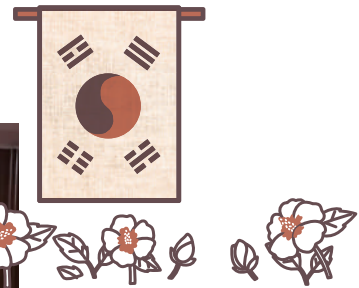
호국보훈의 달 특집

재외한국국제학교 교사가 돌아본 중국 내 한국 역사의 현장 훼손되고 왜곡된 우리 역사 흔적에 "울컥"

인터뷰. 김현진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생님



〈아름다운 나라〉 노래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 초등생들.



최근 K-pop을 필두로 k-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시기라도 한 것일까. 중국이 김치·한복 등을 자기 문화인 것처럼 소개해 양국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흐른다. 역사의 훼손과 왜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다움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민족적 자존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해가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오늘은 그 노력의 사례로 중국의 한국국제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중국에서 느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재외한국학교에 관심이 있어 교육부 인가 중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해외에 있으면 태극기와 애국가를 잠깐 보고 들어도 몽클하면서 ‘국뽕’이 차오른다고 했던가. 한국 학교에서 학예회 격인 이곳 초등부 페스티벌이 열렸다. 학생들과 〈아름다운 나라〉 노래를 부르



약력 김현진

-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 교사
- 초등역사교육연구회 회장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무국장

며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저마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역사가 긴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었그제 내 위 속에 뭘 집어넣었는지도 가물가물한 판에
 나와 전혀 다른 시대·장소·상황에서 살았던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다니!
 모든 역사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나의 관점, 타인의 관점 그리고 진실.
 역사책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배우고, 여행을 통해 나의 관점을 알게 되며
 그렇게 역사의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진실에 다가가 본다.
 평균수명 30~35세를 살고 갓 이집트 사람들.
 그 짧은 생을 눈부시게 살아내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내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멋진 인간들!
 과학은 놀랍게 발전했으나 인간은 되려 퇴보한 것이 아닐까.

- '신문희'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워 영향을 주고받은 한국과 중국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실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현시대를 사는 우리도 역사적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재의 삶에 적용하고, 반성해 아쉬운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아픈 역사를 성찰의 도구로 삼고, 귀감이 되는 역사를 교훈 삼아 살아가야 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역사·문화·지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이곳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여행하면서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알고 이름에도 한자를 쓴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죽·만두·국수 등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생생한 역사 교육 위해 직접 체험해보기로

무엇보다 교사로 와서 중국을 경험해보니 우리 조상의 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생각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체험의 역사 교육을 넘어 역사적 사고력을 높이고, 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한국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체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인근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갇혔던 뤼순 감옥에 가보기로 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사진과 글로 배우겠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랴오닝성 인근에 남겨진 고구려의 흔적

내가 지내는 다롄시는 중국 랴오닝성에 있는 도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랴오닝성 인근에는 고구려 산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고구려 비사성(卑沙城)이다. 고구려 역사에 있어 이 성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이다. 비사성은 안시성·백암성 등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천리장성의 주요 거점으로, 수·당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645년 당나라군의 야간 기습으로 비사성이 함락돼 8,000여 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북공정의 하나, '비사성'을 '대흑산산성'으로

대조영은 이곳에서 세력을 규합해 발해를 세웠다. 발해뿐 아니라 고구려 역사와도 매우 깊은 인연이 있다. 대흑산 정상 쪽에 험한 바위와 낭떠러지가 있어 천혜의 요새임을 알 수 있다. 한 시간 남짓 올라간 비사성 서문 입구 한쪽에는 대흑산산성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원래 이름인 '비사성' 대신 동북공정의 하나로 '대흑산산성'이라고 바꿔 써놓았다.

고구려 유적지가 당나라 유적지로 바뀌기도

서문을 지나면 누각이 있다. 고구려 장군이 병사들을 지휘하던 장소다. 이를 옥황상제를 받드는 옥황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옆에는 돌로 만든 당나라 기마와 기병들을 양옆으로 배치해 고구려 유적지를 당나라 도교 유적지로 바꿨다.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 역사의 현장이 중국 역사로 둔갑했다. 한국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랑스러움과 착잡한 마음이 함께 들었다.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천리장성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비사성을 방문해 고구려인의 기상과 흔적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많은 고구려의 산성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영화로 유명한 안시성은 미뤄 짐작할 뿐 아직까지 정확한 흔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 밖에도 하얼빈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 다롄에는 재판관을 받은 관동 대법원과 투옥되고 순국한 뤼순 감옥 등이 있다. 역사 흔적의 고리를 찾듯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직접 방문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른다.

1. 뤼순감옥.
2.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3. 비사성 점장대.
4. 충칭 임시정부.
5.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외에서 우리 역사의 흔적 바라보며 가슴 벅차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주년 되던 해였다. 한국에는 근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도 세워졌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많은 한국 사람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를 다녀갔다. 일본의 감시로 인해 상하이·항저우를 거쳐 피해 다니던 임시정부는 결국 마지막에는 충칭에서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이했다. 재외에서 보는 우리의 흔적은 더욱더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한다. 지금의 비행기와 고속열차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먼 곳까지 걸어와 외롭게 투쟁했을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다.

사라지고 왜곡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

북한과 지척인 단둥에는 고구려산성 박작성,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산 백두산,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 민족시인 윤동주 생가, 산둥지방까지 신라인의 기상을 펼쳤던 장보고의 흔적 적산법화원 등이 있다. 또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걸어갔던 만리장성 동쪽 끝 산하이관과 청나라 피서산장 청터, 삼전도의 굴욕 후 끌려간 소현세자가 기거하던 선양의 황궁 옆 조선관, 실크로드를 넘나든 신라인들의 흔적이 남겨진 돈황석굴 등 넓디넓은 땅 중국 곳곳에는 한국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돼 사라지고, 중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는 역사 기록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남은 기간 우리의 흔적 더 찾아갈 것

4년의 계약 기간 중 이곳에서 근무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우리의 흔적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봉쇄가 깊어져 아쉬움이 든다. 언제 다시 이곳을 오게 될지 모르기에 지금도 우리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고 교수님들에게 자문해보고 자료를 정리해 새로운 역사적 장소 방문 계획을 세워본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적 장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생각해본다. ①



어른 같지 않은 어른으로 키우겠습니다

글. 최문혁 춘천 퇴계초등학교 선생님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의 저자 최문혁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른스럽다’라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하고 행복한 순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예가 비교의 순간인데 어른의 비교가 뽀뽀에 가깝다면 아이의 비교는 뽀뽀에 가깝다고 한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만나 보자.

“아이고, 어린 애가 참 의젓하네, 어른스러워!”

2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이다. 보통 칭찬으로 건네는 말이지만 그때는 상당히 뿌듯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꽤 민망한 말이다. 게다가 어른이 된 지금은 “무슨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나?”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 당시 그분은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칭찬의 의도를 담아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겠지만,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 칭찬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칭찬의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다.

우리가 보통 ‘어른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주로 어떤 때 사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른들 틈에서 조용히 있을 때, 주어진 어떤 일을 인내심 있게 잘 해낼 때 정도. 내가 아이였을 때는, 주로 저런 상황에서 들곤 했으나, 당연히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어른스럽다거나 철이 들었다는 표현이 오가곤 한다. 반대로 ‘아이답다’라는 말

을 떠올려 보면 사용해본 적이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 ‘3학년인데 아이 같다.’, ‘고등학생인데 아이 같다.’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냥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는 또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생활하다 보면 어른과는 정말 다른,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행운의 순간이 참 많다.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비교’의 순간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교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은,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형체가 없는 것일지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한다. 비교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둘 이상의 것들을 맞대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낸다는 비교의 정직한 뜻에 좋고 나쁨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른들은 비교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나름의 판단을 덧붙인다. 특히나 누군가의 좋은 점, 잘난 점을 발견했을 때 유독 그런 것이 심해지곤 한다.

“재는 어떻게 저런 걸 잘하지?”

“재는 벌써 저걸 다 한단 말이야? 나는? 우리 아이는?”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어른들의 비교는 다시 자기를 향하는 화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나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어떤 책에서는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며 충고하곤 한다.

교실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비교의 상황은 어른들 못지않게 자주 찾아온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정반대다. 어른들의 비교가 ‘-(뽀뽀)’이라면 아이들의 비교는 ‘+(뽀뽀)’에 가깝다.



어른들의 비교가
‘-(빨셈)’이라면
아이들의 비교는
‘+(덧셈)’에
가깝다.



“우와, 이거 뭐야? 나도 알려주라.”

“너 이거 진짜 잘하네! 이것도 해봐 줄 수 있어?”

“다음에 나 이거 하려 하는데, 그때 너는 이거 잘하니까 같이할래?”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나누곤 한다. 물론 “와, 대박!”이라는 더 간단한 표현 속에 진심을 담아 비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비교를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좋은 친구를 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철이 없고 순진하다며 ‘아이답다’라는 표현을 듣는 아이들이야말로 옳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이 일찍 들어서 착하다거나, 생각이 깊고 어른스럽다는 ‘칭찬’의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어찌 보면 어른의 세상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에 있는, 너무 일찍 비교와 속상함 사이의 연결을 알아차린, 그래서 어른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지내며 수많은 것을 배워나간다. 당연히 그 어떤 어른도 “저 친구와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거라”라며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또 한 번의 ‘자존심 상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한 마디 말보다 비언어적 전달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어른의 행동과 표정, 느낌 또는 분위기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곤 한다. 친구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지나가는 말일지언정 어른들의 용어로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느낀 아이들은 그렇게 서서히 어른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한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어른답다’라는 말은 빨리 어른처럼 사고하고, 어른같이 행동하기만을 바라는 우리 어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만이라도 아이답게 행동하고, 아이답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 있어 하며, 아이답게 당당하게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나는 어느새 나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남과의 비교에서 위축되거나 속상함을 더 자주 느끼는 보통의 ‘어른’으로 자라버렸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와는 생각이 다른 어른으로 자라길. 이후 그들의 어른들로부터 “어른이 되고도 철이 없네. 어른이 되어도 어른답지를 못하네”라는 꾸밈음을 들을지언정 남들과의 비교에서 한없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신을 패배시켜버리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다짐해본다. **㉮**

“어른 같지 않은 어른으로 키워겠습니다.”



약력 최문혁

- 춘천 퇴계초등학교 교사
- 교육 블로그, 유튜브
〈여느날 여느교실〉 운영
- 저서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테크빌교육, 지학사와 업무협약 체결...공교육 수업 지원 강화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공교육 교사 수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학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교육에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검정교과서 체제에 따라 지학사 수업 콘텐츠를 교사 수업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클래스메이커와 교과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은 업체는 금성, YBM, 교학사, 지학사 총 4곳이다. 앞으로 테크빌교육은 티처빌원격연수원을 통해 지학사를 포함한 '검정교과서 연계 교사 연수'도 선보일 계획이다. 클래스메이커는 7

만 6,000여 개 유튜브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현직교사가 출판사별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교사 수업 지원 플랫폼이다. 3월부터는 12개 출판사별 전 학년 대상 과목, 단원, 차시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큐레이션 한다. 검정체제로 각 출판사 사이트를 방문해 수업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교사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희 기자

테크빌교육 '티처몰', 'AI 스마트 장바구니·교과서 준비물' 서비스 선보여



테크빌교육 티처몰이 공교육 교사 수업 지원을 위해 'AI 스마트 장바구니'(특허출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스마트 장바구니'는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티처몰 장바구니에 담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금액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학교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물품을 고른 후 티처몰 고객센터로 유선 요청해야 했으나 신학기부터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예산 맞춤 되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AI 스마트 장바구니는 필요한 만큼 여러 개의 장바구니 생성도 가능하다. 옆 반 선생님과 물품이 섞이는 혼란을 방지하고 과목별 행사별 학급 운영에 맞춰 여러 개의 장바구니로 관리할 수도 있다. 또 행정실 또는 구매 담당 선생님이 상품을 구매하는 특수한 학교 결제 시스템에 적합하게 '결제 요청하기' 버튼을 생성, 아이디를 공유해서 결제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해결했다.

나기호 기자

전자신문 (2022. 3. 30)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회장 취임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가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한국디지털교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 이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고 협회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2001년 설립된 교육부 소관 기관으로서 교육정보화 산업 발전에 앞장섰다. (기사 중략)

신임 이형세 회장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로 새롭게 태어나고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및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선구자 및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내 이러닝 공급시장은 4조 6,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2% 성장했고 수요시장은 4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성장했다”며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질적으로 발전시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에듀동아 (2022. 4. 7)

테크빌교육,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MOU... 초·중·고 교사 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이 “초·중·고 교사 교육 콘텐츠 개발 협력을 위해 (사) 교사크리에이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 중략)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티처빌 연수로 제공 ▲클래스메이커를 통한 ‘티튜버’ 콘텐츠 큐레이션 ▲쌤동네를 통한 교사 모임 활성화 ▲티처몰과 교육 상품 기획 ▲교육 현장 의견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머니투데이 (2022. 4. 28)

테크빌교육,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출간 북콘서트 개최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출간을 기념해 책의 저자인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Eco-STEAM 연구회'와 함께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북콘서트에는 교사 및 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는 음악 콘서트로 플루트 앙상블과 환경 랩 공연이, 2부는 '환경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책의 저자인 Eco-STEAM 연구회는 환경교육과 STEAM 교육의 융합을 기본으로 기후위

기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교육과정을 연구·실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다. 인천 왕길초 변윤섭 교사를 중심으로 처음 만들어져 현재 1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지구를 구하는 실천 방법을 담은 환경놀이 기본서다. 학교 현장과 실생활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생태·환경 감수성을 자라게 해주는 다양한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를 담았다. (기사 하략)

고문순 기자

매일일보 (2022. 5. 9)

테크빌교육 티처빌, 초등 교사 수업 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정식 출시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 초등 선생님 수업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정식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클래스메이커는 국내 최초로 검정교과서 11개 출판사의 초등 수업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학년, 과목, 차시별로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를 큐레이션 제공해 선생님이 수업에 필요한 전문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 7월 베타서비스를 제공하며 8,000여 명이 넘는 현직 초등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화시켰다. 현직 선생님이 선별하고 시가 추천해주는 똑똑한 큐레이션 서비스는

물론 광고나 저작권 걱정 없이 추천 학습구간만 활용할 수 있게 구성돼 실제 수업 현장이 제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나기호 기자

베리타스알파 (2022. 5. 16)

테크빌교육, 아이포트폴리오와 협력...공교육에 영어교육 제공



테크빌교육이 인공지능 영어독서 솔루션 리딩앤(READING&)의 운영사 아이포트폴리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테크빌교육은 이번 협약으로 리딩앤의 '빅캣퓨처팩'을 테크빌교육의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폰'에 입점하기로 했다. 티스폰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한데 모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교육 지원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이다. 빅캣퓨처팩은 세계적인 출판사 콜린스의 프리미엄 영어교재로 아이포트폴리오가 자체 개발한 5단계 멀티디멘션 리딩(MDR) 학

습법을 통해 언어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사 중략) 이창훈 테크빌교육 에듀커머스부문 대표는 “최근 공교육의 최대 이슈는 디지털 전환과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이다”라며 “티스폰은 현직 선생님들에게 에듀테크 서비스를 빠르게 공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교별, 교사별 자율구매권 등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희 기자

전자신문 (2022. 5. 23)

테크빌교육, 대교와 공교육 수업지원 협력을 위해 MOU 체결



테크빌교육이 공교육 교사 수업 지원 강화를 위해 대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협약에 따라 공교육에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테크빌교육은 교사 수업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를 통해 대교의 3~4학년 수학 콘텐츠와 3~6학년 영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티처몰'을 통해 대교 교과서에 맞춘 수업 준비물도 제공한다. 클래스메이커와 교과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은 업체는 금성, YBM, 교학사, 지학사, 대교 총 5 곳이다. 앞으로 수업 콘텐츠 제휴를 위한 출판사와의 업무 협약을 확대하고 티처빌원격연수원을 통해 검정교과서 연

계 교사 연수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대표는 “즐거찾기를 통한 나만의 수업 교안 만들기, 수업 자료를 우리 반에 공유하기 등 교사의 부담과 시간을 줄이면서 수업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티처빌 20th 교사의 일상이 되다



2022

- 티처빌 20주년♡



2021

- 교육부 장관 표창 3회 수상
- KERIS 평가 7회 연속 우수기관
- 교사수업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 출시
-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서비스 '쌤학공' 출시



- 쌤동네, 지식공유 플랫폼 리뉴얼 오픈
- 교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CJ ENM과 MOU
- 원격연수원 최초 '회원등급제' 시행

2020



- 원격연수원 최초 '상시연수' 론칭
- 쌤동네, '교사 학습공동체 오프라인' 모임 지원
- '선생님 힘내세요' 캠페인 개최
- 테마별 교육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출시
- '티처빌' 교사 지원 통합 플랫폼 론칭
- 티처빌 매거진 창간

2018



2019



- 6년 연속 KERIS 최우수기관 선정
- 크리에이터 공모전 '스쿨스타S' 실시
- T라운지 포인트몰 오픈
- 쌤동네, 강사 섭외 서비스 '쌤찾자' 오픈
- 티처빌 네트워크데이(티처빌! 교사를 잇다) 개최
- 티처몰, '독립영웅 10인' 종이공작 출시
-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TEACHERVILLE



-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 전주교대와 함께 예비교사 세미나 개최

2015

- 교사 지원 플랫폼 '쌤동네' 론칭
- 티처빌 회원수 50만명 돌파



2016

2017

- 티처빌 15주년 기념 '교사 페스티벌' 개최

2014



- 48만 교사를 위한 '단비 프로젝트' 진행
- '스승의 날' 희망 나눔 행복 이벤트 개최
- 신규임용 교사 대상 무료연수 제공

2009

- 교원능력평가 진단서비스 출시



2004



-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오픈

2002



-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설립

티처빌
History

인공지능 교육의 끝판왕!

'KT AI 코딩블록' 라이브 연수 현황리에 마무리

글. 티처빌사업부 콘텐츠기획팀

1100여 명 신청한 KT AI 코딩블록 라이브 연수

KT의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교육 플랫폼인 AI 코딩블록을 활용한 라이브 연수가 현황리에 종료됐다. 본 연수는 'AI 코딩블록 2022 개정교육과정과 인공지능 교육'을 주제로 5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신청자는 교사 간 정보 공유 플랫폼 썸동네를 통해 모집했으며, 사전 신청자는 약 100여 명을 기록했다.

본 연수는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강신천 교수의 진행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언급된 AI 교육의 방향성을 다뤘다. 아울러 파이썬 등 전문 코딩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코드를 KT AI 코딩블록으로 손쉽게 구현하는 과정을 실습해 AI 코딩블록의 특징점인 텍스트 코드를 블록 코드로 정확히 구현하는 과정을 전달했다.

KT AI Coding Block

인공지능 교육의 끝판왕!
KT AI 코딩블록

강신천 교수님이 알려주는
2022 개정교육과정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
KT 코딩블록으로 경험하는 인공지능

모집대상
2022개정교육과정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을 알고 싶은 분
KT AI코딩블록으로 컴퓨터적 사고를 경험하고 싶은 교사
데이터 과학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교사

난이도
중-하
코딩 기초 지식 없이 수강 가능!

출처: 티처빌교육연수원.

라이브 연수로 AI 코딩블록과 교과 활용방안 등 제시

티처빌과 KT는 지금까지 2회의 라이브 연수를 진행했다. 첫 회로 진행된 라이브 연수는 KT AI 코딩블록의 교과 활용방안을 설명하며 현장 교사가 AI 코딩블록을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해 실용성을 높였다. 2회차인 연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밝힌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과 KT AI 코딩블록이 향후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성에 얼마나 적합한 플랫폼인가를 설명했다.

SNS 이벤트 통해 KT AI 코딩블록 참여 독려하기도

KT는 AI 코딩블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가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이벤트는 KT AI 코딩블록을 활용한 작품을 홈페이지에 올린 후 SNS 계정에 공유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SNS 후기 이벤트'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됐다. 다음으로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갤러리에 공유하면 에어팟 3세대, KT IoT 키트, 외식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과학의 달 이벤트'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KT AI 코딩블록 SNS 후기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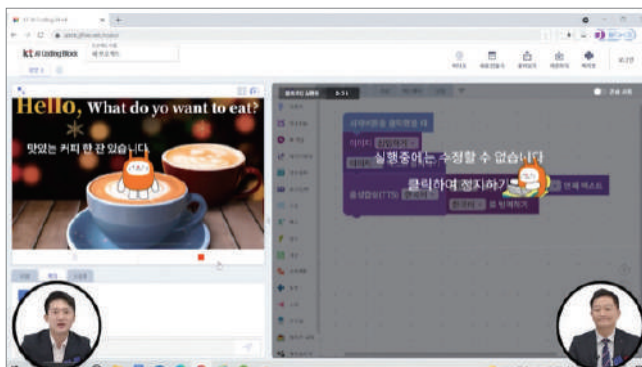
KT AI 코딩블록 과학의 달 이벤트.
출처: KT AI Coding Block 공식 홈페이지.

인공지능 관련 직무연수로 'AI 코딩블록' 추천

티처빌은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티처빌과 KT가 함께 개발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AI 코딩블록'은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향후 중요성이 높아지는 인공지능 윤리를 다룬다. 현장 실습과 수업 활용 방법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향후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AI 교육의 시작을 본 연수로 시작해보길 추천한다. ㉓



KT AI 코딩블록 직무연수 콘텐츠.



KT AI 코딩블록 교육내용.
출처: 티처빌교육연수원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5기	4학점	07월 13일	08월 23일	08월 20일	08월 26일
	3학점	07월 06일	08월 09일		08월 10일
	3학점	07월 20일	08월 23일		08월 24일
	3학점	08월 03일	09월 06일		09월 07일
	3학점	08월 17일	09월 20일		09월 21일
	2학점	07월 06일	08월 02일		08월 03일
	2학점	07월 20일	08월 16일		08월 17일
	2학점	08월 03일	08월 30일		08월 31일
	2학점	08월 17일	09월 13일		09월 14일
	1학점	07월 06일	07월 26일		07월 27일
	1학점	07월 20일	08월 09일		08월 10일
	1학점	08월 03일	08월 23일		08월 24일
	1학점	08월 17일	09월 06일		09월 07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준비된 선생님의 장바구니 티처몰 가족이 되어주세요!

티처몰 가족 학교만의 특별한 혜택

학교예산 구매 시 모든 상품이 무료배송
학교예산 후불제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
행정 서류 지원
합배송 및 해외 배송 가능

타 쇼핑몰 상품 구매대행
학교장터(S2B) 전자계약 가능
다양한 이벤트
학교에 필요한 교구와 쌤 특가 상품 등록

물품 구매가 쉬워지는 편리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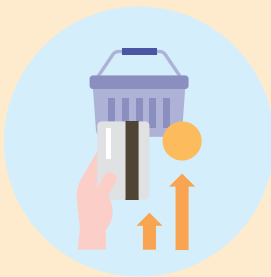
견적서, 에듀파인 견적서 다운로드
예산맞춤 시스템화
편리한 세금계산서 신청

새로운 장바구니 추가 기능
장바구니 공유하기(오픈 예정)
카카오톡 상담

클릭 한 번으로 1원까지 정확한 예산 맞춤! AI 스마트 장바구니!



My 장바구니
(여러 개 만들기)



다른 ID(행정실쌈)로
결제요청



다른 선생님에게
장바구니 공유



AI 원클릭
자동 예산 맞춤

AI 스마트 장바구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2022년

· 티처빌 신규과정 ·

Coming Soon

12만 유튜브 송사비가 들려주는
클래식에 숨겨진 이야기

30차시

클래식 아화



박정현, 송사비

강의 특징

- 클래식 작품과 음악가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음악적 상식 제공
- 12만 구독자를 보유한 송사비가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설명

강의 개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은 클래식은 역사·문화와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했다. 어려운 용어와 서양의 고급문화라는 선입견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광고나 대중교통 안내 등 일상에서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본 과정은 이러한 클래식을 작품과 작가의 뒷이야기에 초점을 뒤 풀어간다. 흥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여러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교양과 상식을 늘린다. 이렇게 얻게 된 소양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양한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교과를 넘어 여러 부분에서 동기 유발이나 설명을 위해 쓰일 수 있고, 역사·문화적 맥락을 설명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루틴을 만들어 보자!

30차시

우와~한 수업! 우아한 교사 교육과정

김형식
배상희, 유영식
이선숙, 정윤리

강의 특징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의 개념 및 중요성 설명
- 교과별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의 개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용어는 교육과정(교육내용)과 수업, 평가 그리고 기록을 하나로 일체시킨다는 의미인데 교사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학생의 내면과 성향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교과 지식이나 수업 방법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에 본 과정은 교사 교육과정의 자세한 안내와 사례로 이뤄져 있으며, 선생님만의 수업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량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습득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교사의 수업 자존감과 학생들의 배움 성장을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테리어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15차시

운이 좋아지는 인테리어, 인생이 달라지는 집

박성준



강의 특징

- 풍수지리의 개념 설명 및 운이 좋아지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 설명
- 다양한 풍수 사례를 통해 운이 좋아지는 집과 교실 인테리어 팁 소개

강의 개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운을 더하는 인테리어, ‘운테리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대기업 총수·기업인·정치인 등의 풍수 컨설턴트 전문가인 박성준 소장은 풍수와 인테리어의 접목으로 집과 교실의 내외부를 생기와 복이 가득 담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박성준 소장이 알려주는 바로 실천 가능한 운테리어 및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확인하고 운이 좋아지는 인테리어, 손쉽게 실천해보자!



전문성·실용성·다양성을
고루 갖춘 환경교육 직무연수!

15차시

환경교육 ON! 그린피스와 함께

GREENPEACE
그린피스와 함께!

강의 특징

- 그린피스 소속 캠페이너 8인이 환경 전문 지식과 해외 사례 소개
- 초·중등 환경 전문 교사의 교실 속 환경교육 실천 노하우 전달

강의 개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22 개정교육과정도 환경교육을 확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티처빌과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손을 잡았다. 전 세계 환경교육 현황을 알리고, 한국의 교실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교육의 노하우를 담아 직무연수를 기획했다. 본 연수는 3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전문성이다. 환경 전문가로 활동 중인 그린피스 전문위원과 캠페이너 8인이 강의를 맡았다. 다음은 실용성이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환경교사가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다. 기후위기·해양환경·채식·에너지·지속 가능한 발전 등 환경교육과 관련한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천 여교사 풋살동호회 팀 '토라' 골 때리는 여교사들의 이유 있는 풋살 사랑

글. 조연지 인천 불로중학교 선생님



3월 친선경기 시작 전 토라 단체사진.

인천에는 풋살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는 여교사들의 동호회가 있다. 이름은 ‘토리’(TOLA). 방과 후 삶으로 풋살을 즐기는 선생님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부장 선생님에게도 “언니”, “헤이” 하고 부를 만큼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학교 안팎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챙긴다. 이제는 여성 아마추어 풋살팀이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토리’를 소개한다.

설렘을 안겨준 풋살과 함께 인천에서 새롭게 출발

유년 시절부터 남학생들과 어울리며 축구·야구·농구 등의 다양한 구기 운동을 즐겼다. 고등학생 때는 체육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러야 할 실기 종목 중 하나인 축구를 준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축구 기본기 기능인 리프팅·드리블·슛을 꾸준히 연습했다. 체육교육과로 진학하게 되면서는 같은 학과의 여학우들과 수시로 모여 풋살을 즐겼고, 대학 내 여학우 풋살대회, 타 대학과의 교류전을 통해 긴장감이 넘치고 승부욕이 저절로 생기는 의미 있는 경험도 했다. 그러한 경험은 나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했고, 지친 일상에서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취미가 돼주었다. 이후 여성 아마추어 생활체육의 저변이 넓은 수도권 지역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원래 거주했던 지방을 떠나 중등체육임용 시험을 인천지역으로 응시했다. 인천지역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취미 활동으로 찾아본 건 여성 아마추어 축구·풋살 동호회였다. 신규 발령을 받고 가입한 동호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약력 조연지

- 인천 불로중학교 선생님
- 인천 여교사 풋살 동호회 팀 '토리' 주장(2021. 11~)
- 2022년 제9회 AOASPORTS배 여성풋살 아마추어 대회 준우승
- 인천지역 여성풋살 및 축구 아마추어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체육교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축구 2급 자격 취득
-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풋살을 주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꿈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여교사 풋살 동호회 팀 ‘토리’는 2021년 11월 25일 발족했다. 사실 임용 전부터 작은 꿈이 있었는데, 풋살이라는 주제로 같은 지역의 여성 체육교사들과 모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온 케이스라 주변에 아는 체육교사 지인도 없었다. 그저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던 터에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타 학교의 체육선생님이였다. 그 선생님을 주축으로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들, 축구에 흥미를 가진 초등, 타 교과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됐고, 그렇게 첫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팀의 주장을 뽑았는데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내가 주장 역할을 맡게 됐다. 늘 책임감을 가지고 매 정기운동의 훈련과 팀이벤트·친선매치·대회 참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여교사 풋살동호회 '토리'

지금 활동 중인 인천 여교사 풋살 동호회의 팀 이름은 ‘tola_fs’다. 그 의미는 “teacher's outside life afterschool=futsal”이다. 방과 후 삶으로 풋살을 즐기는 선생님들이 모인 모임을 뜻한다. 토라는 인천의 정식규격의 풋살구장에서 평일 1회, 오후 7~9시까지



지 운동을 하고 있다. 주장 선생님이 짜오는 훈련프로그램에 맞춰 40분 동안 동작 워밍업, 스텝 훈련, 풋살 경기 시 필요한 경기 기능과 움직임 등을 연습하고, 12~15분 정도 6:6 풋살 경기를 4~5세트 정도로 진행한다.

현재 30여 명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체육·국어·가정·보건·미술·일반사회 등 다양한 교과 담당 선생님이 구성돼 있다.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천 근교의 부천·서울 등의 타 지역 소속 선생님들도 있다. 구성원은 주로 30대 비율이 높고, 20대 새내기 선생님부터 50대의 부장 선생님도 있다. 토라의 특이점은 훈련을 도와주는 코치나 감독이 없다는 것이다. 선생님들로 이뤄진 공동체답게 평소 축구·풋살 분야에서 교수학습을 주로 하는 체육 교사들, 더불어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축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적인 친선 매치, 대회 참가로 성장하는 '토라'

경기 모임은 운동 참석 인원이 8명 이상 될 때 평일 1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선 매치는 인근 지역에서 아마추어 여성 풋살 동호회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과 매월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친선 매치는 평소 우리끼리 운동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압박감을 경험하고, 팀플레이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토라라는 팀으로 처음 참가한 대회는 2022년도 2월 말에 있었던 제9회 AOASPORTS배 여성 아마추어 풋살대회다. 팀이 창단한 지 석 달 만에 나간 대회였지만, 체육교과 담당 8명의 선생님이 모여 쟁쟁한 아마추어 여성 풋살 동호회 16팀 중에 2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4월 말 모두의 풋살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개최한 아이엠그라운드 오피셜매치 여자풋살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풋린이(풋살어린이) 수준의 8팀이 모인 친선 매치 대회에서는 2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토라에 들어와 풋살을 아예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페스티벌을 경험한 값진 시간이었다.



1. 팀 토라 창단 후 첫 매치데이 단체사진.

2. 매치데이 하프타임. 주장의 작전, 피드백 사항을 듣고 있는 팀원들.

3. 아마추어 여자 풋살대회 첫 참가.

4. 비기너 수준의 아마추어 여자 풋살 페스티벌 참가.



나이지긋한 부장 선생님에게도 “언니”, “헤이”라 불러

교직에서는 상호 간에 ‘ 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소통해 다소 거리감이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관계에서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풋살팀 토라에서는 긴박한 경기 상황에서 소통의 신속함과 원활함을 위해 서로 간의 존칭과 이름 뒤에 붙는 ‘ 쌤,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라진다. 아마추어지만 소통력과 팀워크 상호작용만큼은 프로선수 못지않다. 나이가 좀 있는 부장선생님에게도 이름만을 줄여 부르거나 ‘언니’ 또는 ‘헤이’, ‘어이’라는 단어로 소통한다. 경기 중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친숙하고 무겁지 않게 느껴지다 보니 휴식시간에 대화할 때도 훨씬 편하다. 나에게 ‘토라’의 선생님들은 친밀한 언니·동생이자 교직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업무적으로 궁금증이 들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인적 인프라도 돼주었다.

‘토라’를 통해 체육교사로서의 전문성도 향상

경기 전 진행하는 40분가량의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축구 관련 매체, 사이트를 서칭한다. 물론 그동안 축구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익힌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활용할 때도 있지만, 단조로움과 식상함을 피하고 매주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 소개하고픈 마음에 새로운 연습법을 준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수업에 필요한 축구 교수법을 연구해 준비할 수도 있다.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고 ‘토라’에서 진행하거나 반대로 먼저 ‘토라’에서 훈련을 진행해보고 부족했던 부분,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티칭 포인트를 스스로 생각하고 피드백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한다. 축구 교수학습을 시행할 경우 ‘토라’와 학교 수업 간의 상호보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 이해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현직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빛나는 패어플레이와 매너가 돋보이는 ‘토라’가 될 것

창단 초창기에는 운동을 꾸준히 같이할 정기 멤버를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벌써 정회원만 30명쯤 된다. 선생님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여성 선생님들끼리 풋살을 한다는 것이 이슈가 돼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의 활동을 공유해 특정 직업의 여성 일반인들이 모여 즐겁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 또 정기 매치와 친선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패어플레이와 배려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한 팀 ‘토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⑦



노을 3(100x7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21).

제주도교육청 직장인 동호회 '앵그림' 회장을 만나다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제주를 앵그리다

글. 박보영 제주 서광초등학교 선생님

‘앵그림’(Eng-grim)은 제주도교육청 직장인 그림 동호회다. 오는 8월 세 번째 ‘앵그리다’전을 앞두고 있을 만큼 규모가 커졌지만, 그 시작은 학교 내 작은 캘리그래피 동호회였다. ‘앵그림’ 회장인 박보영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통해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1. 라부여관
(10.5x15.5cm, 종이에 수채, 2019).

2. 비치거리
(10.5x15.5cm, 종이에 수채, 2019).

3. 레지던스 광장 분수
(10.5x15.5cm, 종이에 수채, 2019).



약력 박보영

- 서광초등학교 교사
- 직장인 동호회 '앵그림'(Eng-grim) 회장
 - 첫 번째 '앵그리다'展(2020. 11)
 - 두 번째 '앵그리다'展(2022. 1)
- 제주대 교육대학 초등미술교육 석사
- 前 제주북초등학교 교사

그림 여행으로 시작된 그림 활동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름다운 섬 풍경을 캔버스에 옮기는 교사 박보영입니다. 3년째 교직원 그림 동호회 '앵그림'을 운영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해 배우기도 했지만 3년 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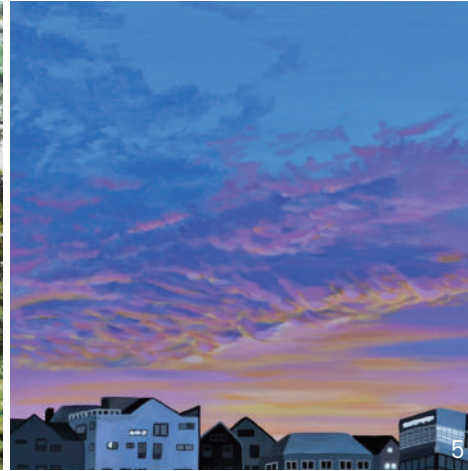
'앵그림'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미술대학원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림 여행이었는데,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방문하고 호텔이나 기차에서 그날 느낀 영감을 바로 그림에 담곤 했습니다. 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정원, 고흐가 잠든 오베르 쉬즈 우아르를 다니며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렸고, 다른 작가들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림 활동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는 의미

매번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제 삶에서 의미 있고,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주제나 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관찰력과 인내심이 필요해 애정이 없는 대상을 그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는 표현 방법으로 그리곤 합니다. 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숲과 하늘 그리고 계절감이 가득한 풍경에 생각을 담아 그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붓질로 캔버스에 채우는 작업은 제 나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은 수채와 아크릴 기법입니다. 팔레트에 다양한 색의 수채물감이 뽀얗게 채워진 모습과 물을 듬뿍 머금은 색채가 번져나가는 순간은 그린다든 행위와는 별개로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줍니다. 아크릴물감은 수채물감과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강렬하고 선명한 색채감과 입체적인 표현 등을 나타낼 수 있어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숲과 노을을 그리

이렇게 작업한 그림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노을과 숲 연작입니다. 핑크빛으로 물든 제주의 노을은 정말 아름답지만, 찰나인지라 그 짧고 아름다운 순간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 노을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편안한 밤, 완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숲 연작에서는 공통으로 나무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를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해방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안전한 관계를 울타리처럼 표현한 나무들과 그 안정감을 토대로 시원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량한 해방감을 다양한 제주의 하늘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 외에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반려견도 그리며 무엇이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그림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감을 주는 제주의 자연과 주변의 사랑스러운 대상에 늘 감사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동료와 함께 만들어진 '앵그림'

교사 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붓을 계속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약속한 '앵그림'의 좋은 동료와 늘 응원을 아끼지 않는 주변의 선생님들, 또 저의 그림 스승님이 돼준 김소라 작가님과 같은 좋은 분들 덕분입니다.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직장인 동호회 '앵그림'에는 제주도의 교사, 영양사, 교육행정직 등 학교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의 작은 공간에서 교직원 캘리그라피 동아리로 시작해 이제 학교 밖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림 실력보다 마음속의 좋아하는 일을 꺼내 함께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희 모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자!" '전시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전시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함께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거침없이 많은 일을 진행했고, 서로 대견해하고 신기해하며 계속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2번의 '앵그리다'전, 8월 3번째 전시 준비 중

'앵그림'(Eng-grim)은 '붓 따위로 이리저리 금을 긋거나 어지럽게 하여 버리다'라는 의미의 제주 방언인 '앵그리다'에서 따온 말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4. Forest 2
(72.7x7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21).

5. 노을 1
(60.6x60.6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6. 노을 2
(72.7x50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게 ‘앵그리’는 모임을 뜻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즐기면서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을 동호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끔 전시에 쫓겨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그림에 몰입한 순간의 행복함, 완성된 작품이 온전히 자신만의 창작물이라는 뿌듯함과 애뜻함이 ‘앵그림’ 회원들이 3년째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앵그림’은 두 번의 전시를 통해 제주의 자연 풍경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들과 우리 삶의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되찾고 싶은 일상의 활력, 관계의 소중함 등을 표현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잃어버린 일상의 즐거움을 그림으로 해소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분들과 우리 주변의 행복을 나누며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3번째 ‘앵그리다’전을 개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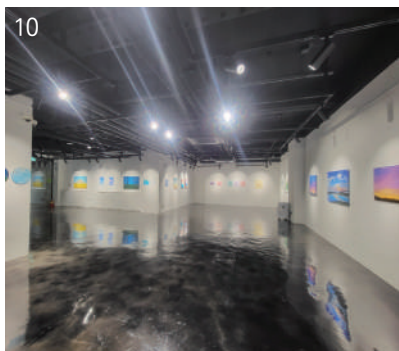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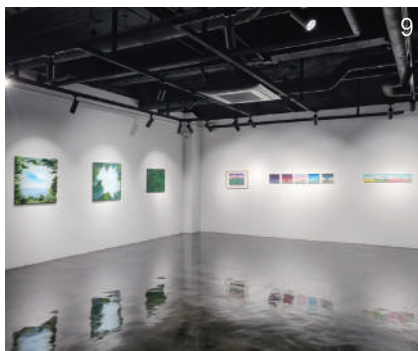
아이들의 꿈을 그리는 붓질을 하고 싶어

올해는 전담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2학년 담임을 맡아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틈만 나면 아이들이 “저희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예요!”라고 선생님 자랑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눈빛과 저의 쑥스러워하는 눈빛이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는데요. 가끔은 무엇을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잘 그리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제 그림이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우리 화가 선생님이기에 꾸준히, 천천히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로서 아이들에게 그림의 재미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용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저와 아이들이 용기 있게 꿈을 그려나가길 소망합니다. ①

7~8. ‘첫 번째 앵그리다’전.

9~10. ‘두 번째 앵그리다’전.





환경 감수성 UP! STEAM 역량 UP!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저자. Eco-STEAM 연구회

기획자. 변윤섭

출판사. 테크빌교육

쓰레기 재활용하며 놀이하고 공부하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 22가지

‘지구를 지키는 영웅’ 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를까? 슈퍼맨·배트맨·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속 영웅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지구를 지킨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구를 살리고 지키는 영웅은 바로 평범한 사람, 우리들이다. ‘기후변화’를 놓고 세계 정상과 한판 붙은 스웨덴의 16세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평범한 학생이었다. 지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 첫걸음으로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을 해보자. 가정과 학교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를 통해 환경 감수성도 높이고, STEAM 역량도 쑥 높여보자.

이 책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가득하다. 2050 지구 위기 시나리오, 탄소중립, 환경과 감염병의 관계, 환경운동 및 제로웨이스트 운동,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의지를 배양해준다.

이 책을 따라, 환경운동 UCC도 만들고 재활용품을 사용해 생수 디스펜서, 캔 라이트, 스피커와 휴대폰 거치대 등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자. 가정과 학교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환경놀이를 하다 보면 학습 성취기준도 충족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트병 전구, 3D 홀로그램 프로젝터, 자동 손소독 장치 등을 만들다 보면 과학과 수학 원리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때로는 원리 탐구로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이하며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환경과제들에 도전해보자. 환경교육, 환경수업을 한결 유익하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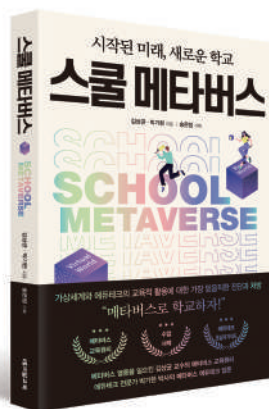


초등·중등 문제해결 장면 56

지혜로운 교사는 교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자. 김영규·왕건환·이상우·이영기·홍경은·황덕현
출판사. 테크빌교육

학급살이, 수업,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대하기.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교사를 위한 특급 처방전이 책으로 나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시시때때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학급운영, 학부모 관계, 교사 갈등, 교권침해, 학교생활... 이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모든 문제해결의 시작은 소통에서부터라는 점이다. 지혜로운 교사의 기본이자 그 정점 역시 소통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현직 교사 6명이 실제 학교에서의 문제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지, 또 어떻게 존중받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진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6명의 현장 교원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문제를 모아 그 과정을 살펴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1) 학급운영 2) 생활교육 3) 교권침해 4) 학부모 관계 5) 교사의 학교생활 6) 법률 대응 등 여섯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별 솔루션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실 속 문제해결에 있어서 한 가지의 올바른 답이라든가 정해진 답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책은 교사가 각자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씨앗이 되기를 자처한다.



시작된 미래, 새로운 학교

스쿨 메타버스

저자. 김상균·박기현
기획자. 송은정
출판사. 테크빌교육

메타버스 국내 최고 전문가 2인이 만났다. 대한민국 메타버스 열풍을 본격화시킨 김상균 교수와 국내 에듀테크 분야 전문가 박기현 박사가 만나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기본서 겸 실용서를 펴냈다. 이 책은 앞부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가장 쉽고 정확한 해설을 제시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메타버스 용어의 진짜 의미를 해설한 다음 왜 학교에도 메타버스가 필요한지, 메타버스를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 메타버스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그 필수 방법론으로서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을 설명했다. 또한 메타버스의 주축인 에듀테크 산업을 소개 및 개괄한 뒤 메타버스 에듀테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근거리 미래 전망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제시해 초심자들의 에듀테크 문해력을 확실하게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직 교사들의 실제 수업사례 가운데 인기 사례를 수록해 실용서로서의 입지 또한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줌 피로감에 대한 돌파구는 다름 아닌 메타버스에 있다. 가상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크나큰 흥미와 막강한 실제감은 학생들을 계속 학습하게 이끈다. 이런 이유로 메타버스를 학교와 교실에 도입해볼 것인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기본서 겸 최고의 실용서다.

웹툰

Heartoon



그림. 이병용
대구 용계초등학교 선생님

괜찮아

가끔씩 말이야...



지나간 것들이
아쉬울 때가 있어



그때 시럽을 넣었어야...

괜찮아...
다가올 것들을 절대



안 놓치면 돼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자



천천히 짝 잡을 수 있어

SNS를 통해 일상의 마음을
그리는 초등교사 이병용입니다.
퇴근 후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
헐툰(Heartoon)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쁜 학기 초
친숙한 커피 친구들과
가끔 수다도 떨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헐툰 (Heartoon)



선생님! 학부모교육 고민이세요?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맞춤형!** 계획만 있다면, **제안형!**



검증된 부모교육 7년 노하우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모공감 아카데미

소통, 학습, 진로진학, 사춘기까지!
학령별,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행사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단체연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하는 부모교육
시간, 장소 상관없는 **간편한 모바일 학습!**
모집 대상과 수요가 다양하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명사특강

전문 명사와 함께하는 특강·토크쇼
교육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강력 추천!
명사와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 비대면LIVE

✓ 온라인VOD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교사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세요

1



인기 검색어와
내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2



내가 만든
콘텐츠와 쌤모임을
쌤동네가 홍보해줘요.

3



판매와 정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쌤동네 교사
크리에이터 혜택
더 알아보기

교사 크리에이터,
쌤동네에서 시작하세요!

785명

크리에이터 활동 교사

학급 자료, 교육 사례, 수업 아이디어를
동료 교사와 공유해보세요.

14,145개

공유된 교사 지식



 티처빌연수원

 쌤동네

 클래스메이커

 티처몰

 키즈에듀빌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키즈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